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2월 4일(화) 조간 (2.3.12:00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20. 2. 3. / (총 9매)	담당부서	만성질환관리과
과 장	이 연 경	전 화	043-719-7380
담 당 자	박 수 정		043-719-7382

어르신들, 겨울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 65세 이상 어르신, 겨울철 낙상으로 응급실 내원이 증가
 - 주로 머리·목(40.3%)을 다치고, 골절(47.3%)이 대부분 차지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약 3.5배 높음
- ◇ 질병관리본부,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5-2018년 동안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낙상 사고가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였다.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름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손상관련 심층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 최근 4년 동안 낙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27만 6158명으로 이 중 남자가 14만 6661명(53.1%), 여자가 12만 9497명(46.9%)이었다.
 - 낙상 손상환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3.8% 증가(2015년, 6만 3200명→2018년, 7만 1931명)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7만 2647명, 26.3%), 6세 이하 어린이(5만 7206명, 20.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한편 겨울철 낙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7.2% 증가(2015년, 1만 5457명→2018년, 1만 8121명)했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약 52.1%로 급증('15년, 3,647명→'18년, 5,546명)하였다.



<연도별 낙상사고 발생 현황,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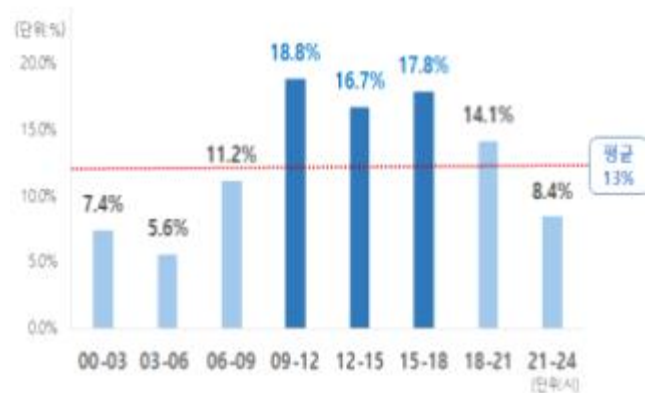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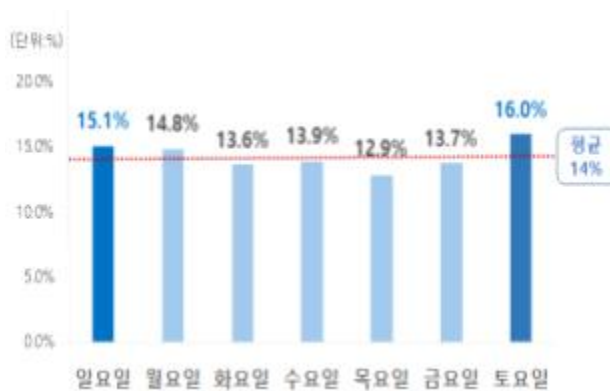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현황 2015-2018>

- 2018년 겨울철 낙상사고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응급실에 내원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성별) 전체 5,546명으로 여자의 발생빈도(3,484명, 62.8%)가 남자(2,062명, 37.2%)에 비해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 (시기별) 주중보다는 주말,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다.
 - (장소별) 집(53.6%), 길·간선도로(28.4%), 상업시설(6.1%) 순으로 나타났다.
 - (활동별) 일상생활(69.5%), 업무(16.6%), 운동·여가활동(12.3%)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 (손상부위 및 양상) 다친 부위는 주로 머리·목(40.8%)이었고, 골절(48.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응급실 진료 후 결과) 대부분 응급실 내원 후 귀가(61.4%)했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65세 미만 환자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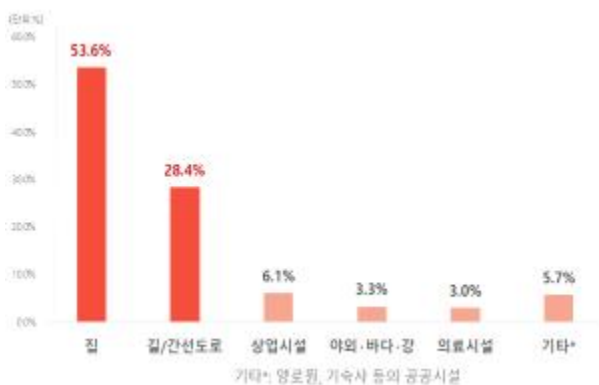
<18년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 발생 현황>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성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요일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시간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장소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활동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손상부위별 발생 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손상양상별 발생현황, 2018>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 응급실 진료 후 결과, 2018>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은 사소하게 미끄러져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 넘어졌을 경우,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키운다.
 - 둘째,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 셋째,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
 - 넷째,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한다.

- <붙임> 1. 응급실손상심층조사 개요
 2. 낙상사고의 연도별(2015-2018) 현황
 3. 노인 낙상사고 안전수칙 포스터

붙임1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개요

- (조사목적) 손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조사하여 손상 발생 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손상예방에 기여
- (조사대상)
 -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외상+중독)환자 전수('15년 28만 건)
 - * '06년 5개소 → '07년 6개소 → '08~'09년 8개소 → '10년 20개소 → '15년 23개소
 - * 23개 기관(가나다순) : 가천대길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보리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의대목동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 (조사내용)
 - 손상의도성, 손상기전, 손상원인, 손상발생일시, 손상발생장소 및 세부장소, 손상유발물질, 자살위험요인, 자살시도 과거력, 추락장소의 특성, 보호장구 착용유무(안전벨트, 안전의자, 헬멧, 에어백 등), 손상예방교육 유무, 사망일시 등 7개 영역 103개 문항
 - * 심층영역 교통사고(8개소), 머리·척추손상(5개소), 자살·중독·추락 및 낙상(6개소), 취학전 어린이손상(4개소)
 - * 통계청 비승인 자료
- (조사기간) 매년 상시 조사
- (조사방법) 응급의학과 의사의 응급실 내원 환자 면접조사 실시 및 조정자(코디네이터)의 의무기록 수집 → 원격 전산시스템 입력* (월 1회)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http://is.cdc.go.kr>
- (운영체계)
 - (질병관리본부)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지원 및 자문, 코디네이터 교육
 - (23개 참여병원) 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 자료 질 관리

붙임2

낙상사고의 연도별(2015-2018) 현황

○ 낙상사고의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2015	2016	2017	2018
응급실 내원자수	11,132,916 (100.0)	271,072 (100.0)	283,422 (100.0)	294,408 (100.0)	284,014 (100.0)
낙상사고	276,158 (24.4)	63,200 (23.3)	67,410 (23.8)	73,617 (25.0)	71,931 (25.3)
겨울철 낙상사고	85,231 (7.5)	15,457 (5.7)	16,545 (5.8)	19,247 (6.5)	18,121 (6.4)
겨울철 65세 이상 낙상사고	22,483 (2.0)	3,647 (1.3)	4,247 (1.5)	5,303 (1.8)	5,546 (2.0)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질병관리본부, '15-'18년)

* 낙상사고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

* 겨울철(12~2월)

○ 낙상사고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2015	2016	2017	2018
낙상사고 총계	276,158 (100.0)	63,200 (100.0)	67,410 (100.0)	73,617 (100.0)	71,931 (100.0)
성 별					
남자	146,661 (53.1)	34,440 (54.5)	36,037 (53.5)	38,615 (52.5)	37,569 (52.2)
여자	129,497 (46.9)	28,760 (45.5)	31,373 (46.5)	35,002 (47.5)	34,362 (47.8)
연 령 별					
0-6세	57,206 (20.7)	13,910 (22.0)	14,390 (21.3)	15,301 (20.8)	13,605 (18.9)
7-12세	17,379 (6.3)	4,210 (6.7)	4,236 (6.3)	4,550 (6.2)	4,383 (6.1)
13-18세	10,907 (3.9)	2,790 (4.4)	2,834 (4.2)	2,742 (3.7)	2,541 (3.5)
19-34세	34,671 (12.6)	8,520 (13.5)	8,672 (12.9)	8,937 (12.1)	8,542 (11.9)
35-44세	22,266 (8.1)	5,338 (8.4)	5,609 (8.3)	5,799 (7.9)	5,520 (7.7)
45-54세	28,832 (10.4)	6,824 (10.8)	7,005 (10.4)	7,593 (10.3)	7,410 (10.3)
55-64세	32,250 (11.7)	6,641 (10.5)	7,670 (11.4)	9,030 (12.3)	8,909 (12.4)
65세이상	72,647 (26.3)	14,967 (23.7)	16,994 (25.2)	19,665 (26.7)	21,021 (29.2)

붙임3

노인 낙상사고 안전수칙 포스터



www.cdc.go.kr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어날 수 있을 때는

- ☑ 가장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 ☑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세요
- ☑ 평소에도 자주 연습해 보세요



1 옆으로 놓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 손으로 몸을 일으키세요.



2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 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으세요.



5 조심스럽게 돌아서 앉으세요.



4 천천히 일어나세요.



3 몸체를 잠은 상태에서 힘이 좋은 쪽 다리를 앞으로 놓으세요.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가능한 통증이 없고 편한 자세로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